

작년 육아휴직 역대 최대… 광주·전남 1만1728명

국가데이터처 2024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

전년비 2.4%·7.7% ↑

전국 20만명대 회복

아빠 사용률 첫 10%

1년 내 사용률 43.7%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전년보다 2.4%, 7.7%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제도 효과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1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와 전남의 육아휴직자는 5734명, 5994명으로 전년 대비 134명(2.4%), 429명(7.7%) 각각 늘었다.

최근 10년간 통계에 비춰볼 때 전남은 지난해 가장 많았고, 광주는 2022년(6089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수치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광주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686명으로 313명(22.8%) 증가했다. 반면 여성 육아휴직자는 4048명으로 전년(4227명)보다 179명(-4.2%) 줄었다.

전남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809명으로 281명(18.4%) 증가했다. 여성 육아휴직자는 4185명으로 148명(3.7%)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육아휴직 사용률도 증가했다.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광주 33.5%, 전남 35.7%로 전년 대비 각각 2.3%p, 2.4%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전년(6.4%)보다 3.3%p 증가한 9.8%이며,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70.7%로 전년(70.5%)보다 0.2%p 올랐다.

전남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전년(8.7%)보다 3.1%p 증가한 11.8%이며,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72.7%로 전년(73.6%)보다 0.9%p 소폭 떨어졌다.

전국 육아휴직자는 2022년(20만2093명) 20만명대에서 저출생 여파 등으로

2023년(19만8218명) 첫 감소한 뒤 지난해 다시 20만명대를 회복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는 6만117명으로 전년보다 9302명(18.3%) 급증했고, 엄마는 14만6109명으로 1294명(0.9%) 줄었다.

엄마가 전체의 70.8%를 차지하며 아빠의 비중은 29.2%였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 부모의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34.7%로 1.7%p 상승했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는 육아휴직 대상자 중에 육아휴직자 비율이다.

특히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10.2%로, 2.7%p 높아지며 처음 10%를 넘어섰다. 지난해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으로 아빠의 육아휴직이 늘고 있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엄마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0%p 하락했지만, 여전히 72.2%로 압도적으로 높다.

데이터처는 1년 내 육아휴직 사용률 통

계도 처음 작성했다. 기존에는 아기가 태어난 연도에 해당하는 해에 쓴 육아휴직을 기준으로 집계했는데 연말 출산, 출산 휴가 등을 고려해 12개월 내로 집계함으로써 초기 육아휴직 사용을 정밀하게 분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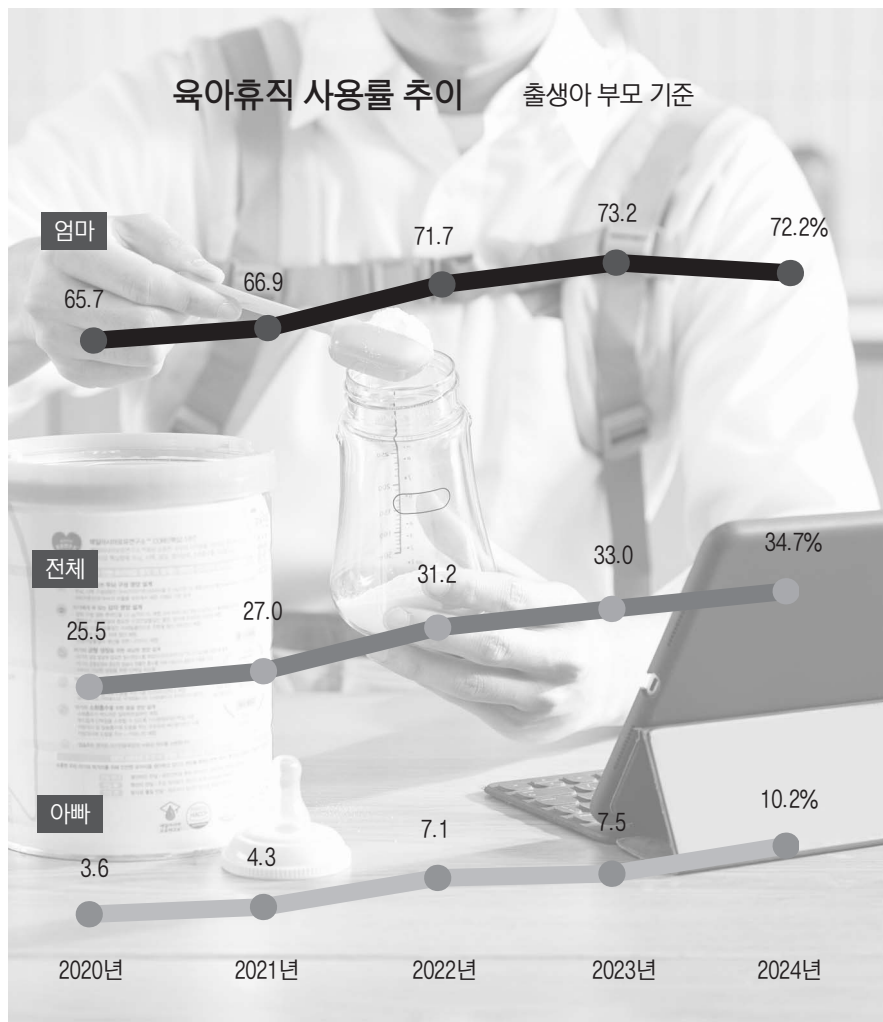
2023년 출생아 부모 가운데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은 43.7%로 전년보다 3.0%p 상승했다. 아빠의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5년 1.1%에 그쳤지만, 2021년(10.2%) 10%대에 진입해 2022년 13.5%, 2023년 16.1%까지 늘었다.

엄마의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5년 68.5%에서 2021년(80.9%) 80%대로 들어섰고 2022년 83.0%, 2023년 84.5%였다.

아빠 육아휴직자는 엄마보다 연령대가 높았다. 아빠 연령대는 35~39세가 38.7%로 가장 많았고, 40세 이상(32.9%), 30~34세(24.9%), 30세 미만(3.5%) 순이었다.

엄마는 30~34세가 42.9%를 차지했다. 35~39세(33.0%), 40세 이상(14.7%), 30세 미만(9.3%)이 뒤를 이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17일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산타원정대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기아 오토랜드광주, 산타원정대 후원

아동센터 성탄 파티 비용 지원

기아 오토랜드광주가 연말을 맞아 지역 사회 소외된 아동들에게 따뜻한 크리스마스 추억을 선물한다.

기아 오토랜드광주(공정장 문재웅)는 17일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산타원정대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산타원정대는 연말연시를 맞아 가족들 봄야동과 이주배경아동 등 소외계층 아동들을 지원하는 캠페인이다.

김희준 기아 오토랜드광주 경영지원실

장은 이날 행사에서 변경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에게 후원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아이들이 평소 갖고 싶어했던 소원 선물을 구매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열리는 성탄파티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기아 관계자는 "성탄절을 앞두고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후원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여수광양항, 미래형 피지컬AI항만 구축 속도

항만공사-네이버클라우드, K-Smart AI종합항만 전환 협약

여수·광양항이 K-Smart 항만 표준 모델인 피지컬AI항만 전환에 속도를 낸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물리적인 환경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해 항만 운영의 자동화·지능화를 실현하는 차세대 항만인 피지컬AI항만 조성을 위해 국내 최고의 인공지능(AI)·클라우드·디지털 트윈 기술 역량을 갖춘 네이버클라우드와 '여수·광양항 K-Smart 피지컬AI항만 전환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기관과 기업은 K-Smart 항만 표준모델 공동 개발, 피지컬AI항만 혁신, 항만물류 데이터주권 확보 및 통합 플랫폼 구축, AI기반 업무혁신 및 스마트 비서 서비스 구축, 디지털 트윈 기반 가상 항만운영 구축, 항만AI전문 인력 양성 및 생태계 조성 등 6대 중점분야에 대해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우선 여수·광양항을 AI항만의 표준모

델이자 국가 물류산업 디지털 혁신의 테스트베드로 육성하기 위해 항만공사와 네이버클라우드는 여수·광양항의 운영 데이터를 활용한 K-Smart항만 표준 모델을 공동으로 설계하고 항만 내 선박 운항·모빌리티 통합제어, 물류설비의 스마트, 무인화를 포함한 피지컬AI 실증용 단계적으로 확대해 완전 자동화·지능형 항만 운영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 항만공사는 안전한 항만 데이터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수·광양항 통합플랫폼(가칭PortSight)에 네이버클라우드의 AI분석기술을 접목해 예측·최적화 기능을 고도화해 물류 흐름의 효율성을 높이고 항만 운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양 기관과 기업은 임직원 대상 AI활용 역량강화 교육, 지역대학·연구기관·스타트업과 연계한 AI물류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

박셀바이오, 화순 신사옥 개소…“바이오테크기업 도약”

R&D부터 생산·상업화까지 통합 혁신거점 구축

클린룸 등 단계적 확장 CDMO 사업 기반 강화

함양면역치료제 전문기업 박셀바이오가 전남 화순에 신사옥을 완공하며 연구개발부터 상업화까지 아우르는 바이오 혁신 거점을 구축했다.

박셀바이오는 17일 화순군 화순읍 감도리에서 신사옥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호범 화순군 부군수, 임지락·이재태 전남도의원, 윤택림 재생의료진흥재단 이사장, 범희승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윤호열 전남바이오진흥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신사옥은 총사업비 76억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1만3352㎡, 지상 2층 연면적 2136㎡ 규모로 조성됐다. 통합업무시설

과 함께 AMP(Advanced Manufacturing Platform·첨단제조플랫폼)를

갖춰 연구, 공정개발, 세로처리, 품질관리(QC), 협업 공간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박셀바이오는 향후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시설과 클린룸을 단계적으로 확장에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중심 기업을 넘어 생산과 상업화를 아우르는 종합 바이오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신사옥은 지난해 7월 준공된 GMP 시설과 인접해 있어 주요 파이프라인별 연

구개발부터 생산, 상업화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박셀바이오는 이를 통해 파이프라인 고도화와 개발 속도 제고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준 박셀바이오 대표는 “이번 신사옥 완공은 연구개발 중심 기업에서 상업화 역량을 갖춘 종합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면역세포치료제의 임상과 생산, 상업화 전 과정을 화순에서 완결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환자에게 혁신 치료제를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신사옥이 위치한 화순 백산·생물의약 산업단지는 병원과 연구기관, 생산시설이 집적된 국내 대표 바이오 특화 산업단지다. 박셀바이오는 이곳을 거점으로 지역 대학병원과 연구기관, 지자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면역세포치료제 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한편 박셀바이오는 신사옥 완공을 계기로 NK(자연살해) 세포와 CAR(키메라 항원 수용체) 기반 면역치료제 파이프라인 다각화, 첨단바이오의약품 CDMO 사업 확대, 생산시설 단계적 증설, 글로벌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며 글로벌 첨단 바이오 테크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박셀바이오는 17일 화순군 화순읍 감도리에서 이호범 화순군 부군수, 임지락·이재태 전남도의원, 윤택림 재생의료진흥재단 이사장, 범희승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윤호열 전남바이오진흥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사옥 개소식을 열었다.

포스코광양제철소, 우수봉사자에 인증패 수여

포스코광양제철소는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온 우수봉사자 16명에게 인증패를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철소는 우수봉사자 인증패를 전달하기 위해 본부에서 ‘3000시간 이상 우수봉사자 인증패 수여식’을 갖고 3000시간 이상 달성 직원에게는 제철소장 명의의 실버 인증패와 배지를, 5000시간 이상 달성 직원에게는 골드 인증패와 배지를 수여했다.

이들은 발 마사지, 다문화가정 결혼식 올려주기, 독거노인 생활지원금 후원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누적 봉사활동 5000시간을 달성한 정영수 과장(생산기술부)은 개인 여가 시간과 연차 등을 활용해 매월 600시간 가

량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현철희수도 30회에 달하고 있다.

정 과장은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고 당시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위기극복에 합심했던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는 역할을 하고 싶어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며 “우리 사회를 위한 상생활동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고재운 제철소장은 “오랜 시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봉사활동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올인인증패 수여가 더 많은 직원들이 봉사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호남권 미래내일 일경험 성과 공유 워크숍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여수 유담 마리나호텔에서 광주·전남·전북·제주 등 호남권 운영기관과 대한상의 통합지원센터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미래내일 일경험 호남권 운영기관 성과공유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 지원하고 광주상의가 주관했다.

호남권 지원센터인 광주상공회의소는 올해 80개 참여기업을 조기에 발굴해 운영기관과 지역 미취업 청년을 매칭하고 사업설명회 개최와 유관기관 거버넌스 구축, 우수사례 공모전 운영 등 다양한 홍보·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사업의 지역 확산을 이끌어 왔다.

워크숍에서는 지난 5일 열린 호남권 미래내일 일경험 공모전 입상자 10명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인턴형 일경험 참여 후 취업에 성공한 김가영씨의 사례와 전국 공모전 멘토 부문 최우상을 수상한 H&G게미칼 정원진 프로의 멘토링 사례가 소개돼 관심을 모았다.

아울러 운영기관 요청에 따라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 관리와 청년 상담·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이 진행됐다.

또 운영기관 회의에서는 기관별 우수성과 발표와 함께 지역 특화 프로그램 발굴, 청년 참여자 만족도 제고, 지역 기업과의 협력 모델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